

# 경북도, 노인기초연금 대상 확대... 44.5만명에 1.4兆 지급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30만원 선정기준액 작년비 14.2% 인상 지급률 75.6%, 전국평균 상회

경북도가 올해 노인 기초연금 대상자를 늘려 65세 이상 일정소득 이하도 내 어르신 44만5000명에게 1조4674억원을 지급한다.

이는 지난해 43만2000명 1조1471억원보다 각각 1만3000명, 3203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달부터는 기초연금 최대 지급대상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까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까지는 소득 하위 40% 이하의 저소득층과 소득 하위 70% 이하의 일반대상자로 구분해 기준연금액을



경북도청 전경

차등 적용해 왔다.

올해부터는 일반대상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구분 없이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69만원 이하면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70만4000원이면 월 최대 48만원을 지급한다

올해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지

난해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48만원, 부부가구 236만8000원보다 각각 14.2%가 인상된 것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도내 어르신 57만여 명 가운데 43만2000여명에게 평균 24만9000원을 지급했다.

경북도의 이 지급률은 75.6%로 전국 평균 70%보다 훨씬 높다.

올해 1월부터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1956년생)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거동이나 교통이 불편하면 '찾아보는 서비스'를 신청(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하면 국민연금공단 담당 직원이 방문해 자세히 설명하고 신청을 도와준다.

박세은 경북도 어르신복지과장은 "올해 기초연금 인상과 지급대상자 확대로 코로나19와 소득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이 조금 이나마 더 안정될 것"이라며 "한 분이라도 더 지급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metroseoul.co.kr



10일 농협전남지역본부는 진도군 고군면을 방문해 한파피해 농가에 생필품을 전달했다.

## 농협전남본부

### 한파피해 농가 생필품 지원

농협전남지역본부는 농협진도군지부와 선진농협과 함께 지난 10일 진도군 고군면을 방문, 연이은 한파로 힘들어하는 농업인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농협은 이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부터 계속된 대설과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도군 고군면 농가를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따스한 온정을 나눴으며,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는지 현장 점검에도 나섰다.

위로 방문에 함께 한 선진농협 정해민 조합장은 "갈수록 이상기후가 심각해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한파로 고통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는지도 잘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박서홍 본부장은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편하게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전남농협은 대설과 한파로 인해 농업인들이 시름이 커지지 않도록 피해농가와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강성대 기자 ksd1008@

# 여수시, 사도~남도 연결 인도교 개설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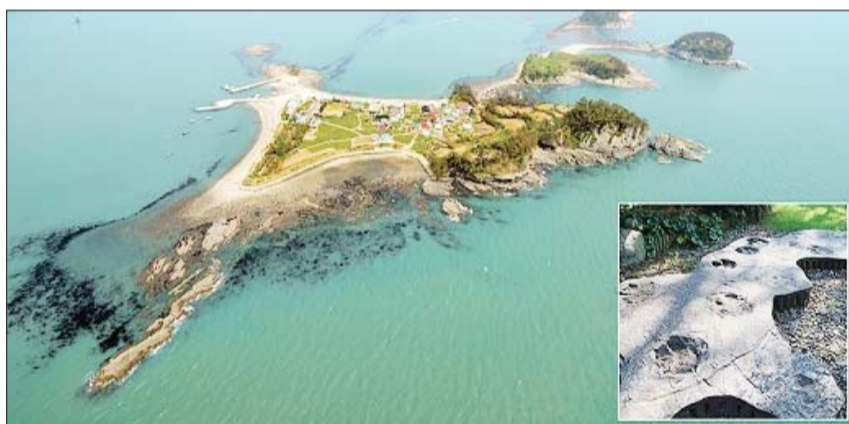
인도교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 섬 관광·주민 정주환경 개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조건 관건

여수시가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주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공통섬' 사도~남도 인도교 개설을 추진한다.

여수시가 공룡의 섬으로 유명한 사도와 남도를 연결하는 인도교 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시지역 주민생활과 웰니스 관광 콘텐츠 활성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사도~남도 간 인도교 개설이 실현될 수 있을지 발주와 동시에 용역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용역 기간은 6개월로 업체가 선정되면 8월경 결과가 나올 것으로



여수 사도 전경 (작은사진) 사도 내 공룡 발자국 모습.

예상된다. 시는 현지조사와 주민협의를 통한 최적의 노선 제시와 개발 기본구상 등 인도교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을 계획이다. 사도와 남도를 연결하는 인도교 개설은 2005년도에도 추진된 바 있다.

지난 2005년 전남도는 '섬 관광자원 개발사업' 연구 용역에 따라 사도~남

도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하고, 사도~남도 간 인도교 가설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2005년 12월 68억 원 규모의 공사에 착수했으나, 문화재청은 공룡화석지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대규모 인공구조물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2007년 현상변경허가를 불허하면서 공사는

중단됐다. 이후 이뤄진 2011년 민간투자 계획도 비슷한 이유로 현상변경허가가 불허된 바 있다.

사도~남도 인도교는 지난해 2월 국도77호선 화양~적금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섬 관광 전성시대가 열리고 화정면 주민들이 주민 불편과 응급상황 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인도교 개설을 건의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재논의 됐다.

시 관계자는 "공사구간이 늘어나더라도 최대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쪽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조건인 만큼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은 백지화될 수도 있다"면서 "사도~남도 간 인도교가 개설되면 사도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취약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에도 든든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수(전남)=김용학 기자 jijacecom@

# 부산시,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사업 추진 광주북구, 태양광가로등 42본 설치

1년간 中소 기술사업화 R&D 지원 오는 25일부터 사업 참여기업 접수

부산시는 지역 내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도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사업'은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기술혁신 역량을 확보한 지역 중소기업의 단기간(1년) 기술 사업화를 위해 연구개발 활동 전 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 기술이전사업화 ▲ 사전기획 ▲ 기업자율 등이며 올해는 중형 및 소형 지원과제로 분리해 총 10개 기업 이내를 선정한다. 중형 지원과제는 전기·수소자동차, 자율주행차 등 15개 기술 분야 중에서 기업당 최대 3

억원을, 소형 지원과제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분야, 범부처 혁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부산시 7대 전략산업 분야 중에서 기업당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부산에 본사가 소재한 중소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부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로 구비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산학연 혁신 주체 간 기술이전, 연구·개발 기획 등의 성과를 연계할 것"이라며 "지역산업의 기술혁신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주민 보행안전·에너지 효율 향상

광주시 북구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후원하고 밀알복지재단이 주관한 '2020년 안심가로등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은혜학교 등 4곳에 태양광가로등 42본을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사회공헌사업인 안심가로등 사업은 주민의 보행안전 확보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북구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은혜학교, 문화여중, 대야제, 두암주공아파트 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육시설과 농촌마을 진입로, 인구밀도가 높은 주거지 일원에 가로등을 설치했다.

기존 가로등보다 1.5배 밝은 이 태양광가로등은 일조량이 부족한 겨울과



광주북구 소재 은혜학교 안심가로등 .

장마철에도 최소 7일 동안 안정적으로 작동된다. 특히 일출, 일몰에 따라 자동으로 점, 소등되고 자정이 넘어면 밝기가 조절되기 때문에 기존 가로등 대비 1분당 연간 2160kwh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구는 이번 안심가로등 설치를 통해 밤길 보행 안전성은 높아지고 범죄, 교통 등 사고 위험성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강성대 기자

## 경북도

### 어린이 학대 예방체계 강화

경북도가 올해 어린이 학대피해 예방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경북도는 11일 도내 7개 시군 16명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33명 늘려 23개 모든 시군에 49명을 배치하고 아동보호 전문요원은 현재 13개 시군 18명에서 19개 시군 24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내 아동학대 대응기관인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 구성기관을 현재의 경북경찰청, 경북도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6곳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협회 등을 포함한 10개 기관으로 확대해 위기 어린이를 조기에 발굴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11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광역아동보호 전담기구 회의에서는 학대예방을 위해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위기의심 어린이 조기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분기별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선 또 시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APO(학대예방경찰관)의 협조체계 공고화를 위한 권역별 합동 간담회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학대받는 어린이 조기발견을 위해 시군 읍면동 직원과 경찰의 협조를 얻어 앞으로 3개월간 양육환경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는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결석아동 및 아동수당 미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안동(경북)=김귀열 기자